

■ 한방으로 본 여름철 질환

어깨 쑤시고 배가 살살 아프면?… 여름 감기네

흔히 ‘여름 탄다’,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증세를 한방에서는 ‘주하병’이라고 한다. 대체로 땀으로 배출되는 열량에 비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기운 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잘 생기는데, 주증상은 입맛을 잃으면서 림만 찾게 되고, 머리가 자주 심하게 아프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걸걸이가 무거워지거나 텁텁한 땀이 많이 흘리는 것이다.

습한 여름철에 몸이 무거워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것은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위 환경이 더우면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체온을 내리려고 하는데, 주위가 너무 습하면 땀이 나와도 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체온조절이 어려운 것이다.

찬바람 찬음식에 인체 신호전달체계 혼란

냉수마찰·일광욕 등 평소 저항력 키워야

◇ 더위로 인한 질환

기만히 앉아 있어도 땀을 많이 흘리면서 두통이 나타난다.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서 눈이 빠빠져지기도 한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졸음을 주체할 수 없고 입맛도 없다. 때로는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심하면 전신에 고열이 나기도 한다.

더위를 먹었을 때 우선 서늘한 방을 찾아 옷을 편하게 풀고, 누워서 다리 쪽을 높여 뇌 쪽으로 혈액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위는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땀을 흘린 상태에서 찬물 목욕을 하면 신경통과 관절염에 걸린다고 나와 있다.

더위를 먹었을 때 체온 조절의 어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심한 탈수 현상이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물을 자주, 많이 마셔서 몸 안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 더위 먹었을 때 좋은 음식

▲ 오이 달인 즙=오이는 체내에 쌓인 열이나 습기를 없애 주는 작용이 있으므로 더위를 먹어 치울 때는 안성맞춤인 채소다. 물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을 때 먹으면 효과적이다. 생으로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익히면 이뇨 작용이 강해 더욱 좋다. 오이 달인 물을 하루에 3회로 나눠 공복시에 마시면 좋다.

▲ 뉴트륨=강한 이뇨 작용과 체내 열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죽을 주면 먹기도 쉽고 입맛도 돌아온다.

▲ 수박=열을 식혀서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 또한 이뇨 작용도 뛰어나다. 또한 입 안의 갈증이 심해서 물이 먹고 싶을 때 효과가 크다. 질 익은 수박을 조려서 만든 수박당을 하루에 2~3회, 1큰술씩 먹거나 수박사케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단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차가워지기 쉬운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매실장아찌=유난히 여름을 타서 더위를 잘 먹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매실장아찌가 좋다. 매실을 먹으면 체내에서 해독작용과 소화를 도와 건강유지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찬음식이나 청량음료만을 계속 먹으면 체력이 더욱 떨어져 증세가 심해진다.

◇ 여름 감기

여름에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되는 수분을 보충해주어야 하는 계절. 어디를 가도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그렇지만 더위를 달래는 찬 바람과 찬 음식 등 급격한 냉방 처치는 우리 인체의 신호전달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어깨가 쿠쿠 쑤시고 자꾸 설사가 나며

나도 모르게 ‘어취~’하고 있다면 오뉴월엔 개도 안 걸린다는 이를 감기의 의심해보자.

여름 감기는 겨울 감기보다 더 무섭다. 대개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게 마련이라 열을 싫어하고 열을 주면 찾는다. 이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여름 감기는 주로 에어컨 등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냉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해 몸을 차갑게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몸이 차서 생기는 여름병

우리 몸은 자체냉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땀이 그것이다. 에어컨의 냉방기 기화하면서 실내의 열을 흡수하듯이, 우리 몸은 땀을 기화시켜 몸의 열을 내린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땀이라는 자체 냉방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너무 많이 의존한다. 밖에서 활동하면서 땀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하면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찾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몸 자체의 체온조절 기능은 저하되고, 몸을 과도하게 차갑게 만들기 쉽다. 이렇게 몸의 외부를 차게 만들면서



강채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이 수일 동안 무기력과 복통에 시달리는 여고생을 진맥하고 있다.

차가운 음료수를 먹게 되면 몸은 안팎으로 차게 된다.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소음인이

나 아이들이 쉽게 여름 감기나 복통, 설사 등

의 소화기 증상에 시달리는 원인이다.

몸이 과도하게 차가워져 여름 감기에 걸리면 맑은 물들을 즐기거나 소화기에도 문제를 생긴다. 추위를 많이 타 선풍기 바람은 물물이 바람이 조금만 있어도 삶다고 할 정도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음서(陰暑)라고 한다. 두통, 전신피로, 소화불량, 설사 등

의 증상을 일으키는 냉방병도 당연히 음서라

고 할 수 있다. 여름 감기 중에서 열이 많은 양

서(陽暑)는 많지 않다. 일사병 등이 대표적인 양식이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소화기

장애도 여름철에 자주 보는 질환이다. 잠자 때

에 배를 내놓고 자면 배앓이를 한다. 배속의

장기가 차가워져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

는 증상이다. 마찬가지로 차가운 음료수나 아

이스크림 등을 많이 먹게 되면 복통, 설사 등

의 증상이 나타난다.

◇ 체온 떨어지지 않게 신경써야

감기는 예방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다. 평소에 충분한 영양, 적당한 운동, 냉수마찰, 일광욕 등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하도록 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너무 빼지 말고 지나친 냉방기 사용이나 찬 음식 섭취도 자제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생활환경은 기본 조건이다.

냉방병에 대한 대비도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찬바람을 직접 쳐지 말고, 실내온도와 실내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환기, 냉방 소리를 막기 위해 실내를 밀폐시켜 놓으면 공기가 탁해지기 쉽다. 2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해야 한다. 냉방이 잘된 곳에서 오래 있을 때엔 긴 옷을 준비해 체온 손실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쉬는 시간마다 가벼운 체조 등을 통해 몸을 움직여 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방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박달나무한의원 강채미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병원 ‘제 4의 암치료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도입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만우)이 호남권 대학병원 최초로 ‘제 4의 암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사진)를 도입했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신관 1층 암센터에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설치해 치료를 시작했다.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13.56MHz의 고주파를 암 발생부위 및 전이부위에 통과시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자살시킨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소개돼

현재 강남세브란스, 분당차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타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던 호남지역 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래환자도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방사선 요법 및 화학 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 효과가 나타나며,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 기능으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시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타 온열암 치료기보다 치료 범위가 넓고, 피부부위의 부작용(화상·흉터)을 유발하는 과정은 복도로 방출방식이 아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에너지 제어 및 각각 시스템 등이 안정화 돼 있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

김만우 병원장은 “이제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며 “암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국내 최초 의료인 감염 보호

‘안전정맥내 유지 침’ 사용

전남대병원(원장 송은규)이 국내 최초로 최근 전부서에서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을 사용해 간염바이러스와 HIV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어 화제다.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이란 주사기

를 사용한 후 주사바늘이 노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 주사침 자살을 줄이고 만드는 장점이다.

이는 끝이 날카로워서 혈관내로 삽입될 때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해야 한다. 냉방이 잘된 곳에서 오래 있을 때엔 긴 옷을 준비해 체온 손실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쉬는 시간마다 가벼운 체조 등을 통해 몸을 움직여 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방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의료인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에 감염성이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 접촉에 될 수 있고,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의료기구 등에 손상을 입어 혈액으로 전파되는 여러 감염병에 걸

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대표적으로 감염병이 있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B형 간염바이러스와 HIV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어 화제다.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이란 주사기

를 사용한 후 주사침 자살을 줄이고 만드는 장점이다.

대한병원감염관리침서(2011)에 따르면 병원직원의 51.2~98.9% 정도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며, 주사바늘 절림이 가장 흔한 경로로 알려져 있다.

송은규 원장은 “안전정맥 내 유지 침 사용은 의료급여에 적용되지 않아 각 병원에서 담당 관리비 측면의 비용으로 책정돼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으나, 전남대병원은 의료종사자를 혈액 매개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지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종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 10980㎡, 임대 면적 : 13937㎡
캐미미월 23평형 2개동, 캐미미월 10평형 17개동 관리동1, 각각 독채형
식 주차장설비, 수련한강지수련원, 기도원적합 여유대지임을 계획되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 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 : 1096㎡
• 지하1층+지상2층 객실 : 29개 라이터이터 이용 유통단면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체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4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 매도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멘리 유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 블라, 접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4천만
광주광역시 북구 유품동 북광주IC 부근 생 산 녹지
• 대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9천5백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 블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대지 : 9150㎡, 흙포형주택 적합
광주광역시 북구 원룸, 복층 1층 3192㎡의 접지
• 대지 : 1502㎡, 현유설수 재배(애나무), 나노신단지계획대로접 현재포장도로접 투자기지유망
• 매매가 : 5억7천만

과수원 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16998㎡, 단독주택 97.7 포함 포도나무 2000주 포함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4천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 녹지 지역
• 전,답 : 1502㎡, 현유설수 재배(애나무)
나노신단지계획대로접 현재포장도로접 투자기지유망
• 매매가 : 2억3천만
가든 매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2번 국도접
• 대지 : 1646㎡, 전, 610㎡, 가든건물, 271.5㎡ 단독주택 : 143.55㎡
매매가 : 6억3천3천포함 실수자금2억7천만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